• 1교시 언어 영역 •

1	②	2	①	3	⑤	4	④	5	④
6	③	7	①	8	③	9	③	10	①
11	④	12	④	13	⑤	14	③	15	④
16	④	17	③	18	②	19	④	20	③
21	②	22	④	23	②	24	①	25	⑤
26	③	27	④	28	①	29	⑤	30	①
31	③	32	⑤	33	①	34	③	35	③
36	⑤	37	⑤	38	③	39	④	40	④
41	④	42	⑤	43	④	44	①	45	①
46	④	47	②	48	②	49	②	50	④
51	③	52	③	53	①	54	②	55	⑤
56	④	57	③	58	④	59	⑤	60	②

〔듣 기〕

〈1번〉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그림을 보면서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달빛 어린 매화 가지가 청아한 향기를 담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야말로 한국적인 풍경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매화의 모습을 화폭에 담기를 즐겼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누구나 한두 번쯤은, 매화 그림을 감상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매화 그림을 감상할 때에는, 매화 그림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주 요소가, 가지의 모습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직으로 솟아 올라간 고고한 매화나무 가지를 그린 그림에서는, 선비의 곧은 지조나 여인의 정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지가 단정하고 우아하게 밑으로 늘어져 땅을 향하여 꽃피는 한 줄기 매화의 모습에서, 겸손한 선비의 면모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가지가 이리저리 굽거나 잔가지가 많은 매화 그림으로부터 화려한 장식성과 함께 다양한 서정성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그밖에 드물긴 하지만, 구부러진 줄기에 푸른 이끼가 끼고, 비늘처럼 껍질이 일어난 매화를 그리기도 합니다. 늙은 등걸에 앳된 가지가 돋아나 꽃을 피우는 묵은 매화의 모습에서, 회춘이나 길조의 의미 등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화 그림 역시 독특한 매력이 있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 왔답니다.

자, 여기 다섯 편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아하고 겸손한 선비의 모습이 느껴지는 '그림'은 어느 것일까요?

1. 〔세부 정보의 적용〕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듣고 실례에 적용하기

〔해설〕 강사는 매화 그림을 감상할 때 가지의 다양한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지가 단정하고 우아하게 밑으로 늘어져 땅을 향하여 꽃피는 한 줄기 매화의 모습에서 겸손한 선비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 두 번째 매화 그림 설명에 제시되고 있다. ③은 가지의 방향은 밑을 향하고 있으나 이리저리 굽고 잔가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세 번째 매화의 설명이 일부 반영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2번〉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이야기 두 편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자(여) : 어느 날 한 노인이 아들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활쏘기 대회에 참가하기로 약속했던 손자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손자는 집에 없었습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지내던 손자는 며칠 후에야 돌아왔고, 할아버지가 추궁하자, 머뭇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손 자 : 발길 닿는 대로 그냥 돌아다니다가…….

할아버지 : 따라오너라.

해설자(여) : 노인은 손자를 빈 활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노인은 시위를 당기며 호흡을 멈추는 듯하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활을 쏘아 버리고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 그만 가야겠다. 화살을 찾아오너라.

해설자(여) : 손자는 과녁을 향해 뛰어갔지만 화살은 거기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화살의 행방을 묻는 손자에게 노인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 애야. 허공에 대고 쏜 화살은 과녁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란다.

-시그널 뮤직-

해설자(남) : 인생을 강물에 비유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인생의 강물에 뛰어듭니다.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그들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더 큰 강으로 흘러가는 분기점에서도 어디로 가길 바라는지, 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을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그저 물줄기만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불과 몇 미터 앞에 폭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서 그들은 물과 함께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되고 맙니다.

2. 〔화자의 의도 파악〕

〔출제의도〕 화자의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해설〕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할아버지는 정처 없이 방황하고 돌아온 손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허공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과녁을 향해 쏘지 않은 화살은 과녁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손자에게 보여줌으로써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남자는 구체적인 삶의 향방을 정하지 않은 채 인생의 강물을 따라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예를 통해 삶의 방향을 상실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두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교훈은 목표를 정한 삶의 중요성, 즉 '목표를 정하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③ '약속의 중요성'은 첫째 이야기에, ⑤ '위기에 처했을 때의 결단력'은 두 번째 이야기에서만 각각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3번〉 이번에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옛 여인들의 바느질 솜씨는 실로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누비인데요, 오늘은 최초로 전통 누비 복원에 성공하신 김누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여 : 예, 반갑습니다.

남 : 선생님, 먼저 '누비'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여 : 네, 누비는 한 마디로 겉감과 안감, 즉 옷감 두 장 사이에 솜을 두고, 줄이 생기도록 곱게 홈질을 하는 전통 바느질법입니다. 방한용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생활 용품에 이용되어 왔지요.

남 :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 전통누비를 어렵사리 복원하셨다면서요?

여 : 네, 정교한 선의 전통을 재현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의외로 비법이 단순하더군요. 비법이란 바로 올을 당겨서 바느질할 자리를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표가 난 자리를 따라 그대로 바느질해 나가다보니 천도 상하지 않고 선도 정확히 맞출 수 있어서 전통 누비의 세계를 되살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 : 대개는 바느질할 자리를 색깔 등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여 : 그래요. 올을 당겨서 바느질할 자리를 표시하는 것은 우리 누비에서만 볼 수 있는 기법이죠.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전통 바느질법입니다.

남 :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번거로웠을 텐데요.

여 : 그럼요. 게다가 저고리 한 벌을 만드는 데 적어도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꼬박 들여야 하는 걸요. 그러니 정성과 품도 많이 들었지만 이 누비 바느질을 하는 동안 우리네 옛 여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끈기와 인내심이 더 필요했었답니다.

남 : 정성도 정성이지만, 누비는 그 두께에 비해 보온성이 월등하지 않습니까?

여 : 네. 누비옷을 입으면 무척 따뜻한데요, 이는 몸의 열기가 누비로 인해 형성된 공기층을 따라 흐르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과 더불어 따뜻해진 공기층까지 껴안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남 : 아, 그렇군요.

3. 〔세부 정보의 확인〕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해설〕 방송에 출연한 여자의 말에서 누비는 다양한 생활 용품에 이용되어 왔다는 정보와, 여성들은 누비 바느질을 할 때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했다는 사실, 그리고 누비옷이 보온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남자의 첫째와 셋째 대사에서 방송 출연 여성이 최근에 한국 전통 누비를 어렵사리 복원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자의 말에 의하면 누비 바느질은 선을 그리지 않고 올을 당겨서 바느질할 자리를 표시한다고 했으므로 ⑤는 대본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4번〉 이번에는 베개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리포터(여) : 안녕하세요? 건강 리포터 김미진입니다. 저는 지금 시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어젯밤에는 오늘 아침 방송 때문에 긴장하고 잠자리에 들어서인지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요, 잠을 잘 잤느냐 못 잤느냐는 베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마다 베개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군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먼저 베개에 대한 네 분의 말씀 들어보시죠.

연구원(남) : 저희 연구소에서는, 베개의 높이가 사람이 누웠을 때의 어깨 높이와 상관 관계가 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이상적인 베개의 높이는 대체로 6cm 내지 8cm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베개 높이를 좀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 사(여) : 우리 병원에는 목 근육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꾸준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은 대개 베개 높이가 통증의 주원인은 아닌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그런 경우, 지나치게 높은 베개는 목 디스크나 목 관절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잘 경우, 온도 변화로 인해 안면 근육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자(남) : 요즘 소비자들은 베개의 모양뿐만 아니라, 높이는 과연 적당한지, 재질은 땀을 흡수하기에 적절한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베개를 고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매 분기마다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제품 생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척추환자용 특수 베개를 출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 생(여) : 베개요? 아, 네. 어릴 적에 한 번은 할아버지 베개를 베고 잤다가 아주 혼이 났었거든요. 왜 그 딱딱하고 높은 베개 있죠? 그런데 자고 나니 목뼈와 등뒤의 어깨 근육이 무지 뻐근했어요. 그 후로 절대 높은 베개는 베지 않아요. 적당한 높이의 부드러운 베개를 사용해선지 저는 요즘 늘 푹 자는 편이에요.

4. 〔화자의 말하기 방법〕

〔출제의도〕 출연자들의 말하는 방법 파악하기

〔해설〕 인터뷰에서 리포터는 '잘 주무셨느냐?'는 인사를 통해 화제인 베개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다(①). 연구원은 6cm~8cm라는 객관적 수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듣는 이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있다(②). 의사는 병원에서의 환자 치료 경험을 제시하면서 베개로 인한 목 부위 통증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③). 여학생은 개인적 경험을 소개하면서 자신에게 알맞은 높이와 재질의 베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⑤). 생산자는 신제품 출시의 배경과 소비자의 반응이 좋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제품의 특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5번과 6번〉 이번에는 토론 내용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지금까지 인터넷 종량제가 대두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인터넷 종량제 실시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분부터 말씀해 주시죠.

여 : 네, 저는요, 사람들이 인터넷 종량제에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많이 쓰는 사람은 요금을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는 제도니까, 저 같이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익이거든요. 회사나 PC방에서 전용선을 쓰는 분들은 종량제와는 아예 상관이 없구요.

남 : 아니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면 됩니까? 초고속인터넷 이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시대에 전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생각해 보셔야죠. 또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에 미칠 영향은요? 이건 분명히 이용자를 무시한 기업 측의 억

지라구요.

여 :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나쁘게만 말씀하시는데요, 분명히 좋은 점도 있어요.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면 아무래도 불법 내려받기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꽤 줄어들 수 있을 걸로 봐요. 저작권 침해는 결국 창작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창작물이 줄면, 소비자가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지요. 그러니 만약 불법 내려받기가 줄어 저작권으로 인한 시비가 줄어들게 되면, 제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받게 되고, 결국 우리들에게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니 이 제도는 결국 우리 이용자를 위한 거죠.

남 : 아니, 인터넷 종량제가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니 자꾸 왜 그러세요? 혹시 인터넷 회사에서 무슨 부탁 받은 거 아닙니까?

사회자 : 저,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투듯 하지 마시고 인터넷 종량제 실시를 왜 반대하시는지 객관적 근거를 들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 : 나 참! 답답들 하시네요. 그럼 어디 그쪽부터 객관적 근거를 들어 말씀해 보시지요.

여 : 그러죠.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 파일이나 방송 등을 보고 듣는 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일반 정보를 검색할 때보다 수백 배의 용량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운영중인 장비의 용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장애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걸 막으려면 적절한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을 통제해야 하지 않겠어요? 인터넷 사용이 통제되면 불필요한 사용에서 오는 과다한 요금 지출도 줄어들고 접속 장애도 사라질 테니 결국 인터넷 종량제는 이용자를 위한 제도인 거죠.

남 : 아니죠. 그게 바로 이용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이용자들의 부담만 늘리겠다는 속셈 아니겠어요? 요금을 적게 내면 서비스를 줄이겠죠.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종량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화자의 말하기 방식 비판〕
〔출제의도〕 화자의 말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비판하기
〔해설〕 토론에서 남자는 상대방과의 논쟁을 회피하고 있지 않으며(①), 인터넷 종량제가 이용자의 이익이 된다는 상대방의 논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②), 상대방의 논리적 설득에 말려들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③), 상대 토론자인 여성의 말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⑤). 그러나 본문에서 남자는 ④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답답하다거나 어떤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는 등 상대방에게 '감정적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6.〔청취자의 반응 파악〕
〔출제의도〕 정보에 대한 청취자의 반응 파악하기
〔해설〕 토론의 중심내용은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인터넷 사용 시간이 적은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요금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는 여성의 찬성론과 기업경영 논리를 들어 결국 이용자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남성의 반대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요금 부담을 느낀 이용자들이 용량이 큰 미디어 파일의 불법 내려받기를 조심하게 될 것이란 말에서, 그렇게 되면 적어도 불법 내려받기로 인한 음반 제작자의 손해가 줄어들 것이란 반응이 나올 수 있다(①). 남성은 인터넷 이용 요금이 줄어들면 서비스 역시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 청취자라면, 요금 인상분은 이용자를 위한 권익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여자의 의견에 회의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②). 그 외 요금 부담으로 인해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및 사용 시간이 줄어들면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 장애가 줄고 결국 이용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말에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④,⑤와 같은 긍정적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종량제 요금은 인터넷 사용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원하는 물건을 찾는 데 걸리는 인터넷 사용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③은 토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쓰 기〕

7.〔주제 설정의 적절성 확인〕
〔출제의도〕 주제 설정의 적절성 파악하기
〔해설〕 만화를 보고 적절한 글쓰기의 주제를 설정하는 문항이다. 만화의 내용은 우연히 버스 좌석에 앉게 된 노인과 젊은이의 이야기로 곤히 주무시는 노인을 깨우지 않고 종점까지 함께 오게 된 젊은이와 노인이 다시 버스를 타고 되돌아가는 상황이다. 대사를 보면, 젊은이는 노인을 배려하고 있고, 노인 역시 젊은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고마워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만화의 중심내용은 '이웃을 배려하는 삶의 필요성'임을 알 수 있다. ②는 지식의 실천과 연관지을 객관적 단서가 없고, ③은 노인의 상황이 고통스럽다고 보기 힘들며, ④는 화해하는 내용과 연결 지을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⑤도 마음먹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유추할 만한 단서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8.〔주어진 조건 활용의 적절성 확인〕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해설〕 〈보기〉는 광고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행위에도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을 일부 수용하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함과 동시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진술은 ③뿐이다. ①과 ②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④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⑤는 상대편 주장의 일부 수용이 아니라 상대편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9.〔개요 수정〕
〔출제의도〕 주제에 맞게 개요 수정하기
〔해설〕 '쌀 소비 감소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로 작성된 개요를 수정하는 문제이다. ①은 주제문으로서 이는 평서문으로 진술되는 것이 원칙이며, 개요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반영해야 하므로 적절한 수정 방안으로 볼 수 있다. ②는 '인스턴트 음식 문화의 확산'이 소비자 측면의 쌀 소비 감소 원인이고, '쌀 품질 관리 체계 미흡'은 생산자 측면의 쌀 소비 감소 원인이므로 서로 위치를 바꾸는 수정 방안은 적절하다. ④는 '소비자의 취향대로 쌀을 개발한다.'라는 진술에서 '소비자 취향'을 '소비자 기호 파악'으로, '쌀을 개발한다'를 '다양한 기능성 쌀을 개발한다'로 구체화하였으므로 타당한 수정 방안이다. ⑤는 '고품질 쌀 공급' 부분은 '쌀 품질의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유통 체계 정비' 부분은 '합리적인 쌀 유통 체계의 구비'로 독립시켜 논지를 선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정 방안이다. ③은 쌀 소비 감소라기보다는 생산 감소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가 항목으로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10.〔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확인〕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현금 영수증 제도의 취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그에 따른 원인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유추해 보는 문제이다. ②와 ③은 '실익이 별로 없다'는 원인과 관련된 적절한 방안이고, ④는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방안이다. ⑤는 현금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사업자에게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적절하다. 그러나 ①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사업자에 부여하는 것은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세금 부담 형평성 도모라는 취지와 상충하므로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11.〔고쳐 쓰기〕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해설〕 ㉠은 문맥상 '올해도'가 있음으로써 예년과 같이 봄을 맞는 감정의 의미가 살아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없다. ㉡은 '움을 틔우다'의 경우는 '틔우다'가 바른 표기이고 ㉢은 추측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는 '-ㄹ는지'가 맞다. ㉣은 각각의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은 '봄의 아름다움과 활력'이라는 전체 주제와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삭제하는 방안은 타당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12.〔바꿔 쓰기〕
〔출제의도〕 주어진 이야기를 의도에 맞게 창작한 후, 보완 전략의 적절성 확인하기
〔해설〕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창작한 다음 미흡한 '장면'을 '의도'에 맞게 '보완하는 전략'이 적절한지를 묻는 문항이다. ㉠은 까마귀가 화려한 비행술을 자랑하는 대목이 의도에 맞지 않으므로, 고기를 물고 외딴 곳으로 혼자 날아가는 장면으로 전환하면 까마귀의 욕망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고기에 대한 까마귀의 집착을 강조하는 대사로 수정하는 방안도 적절한 보완 전략이다. ㉡에서 까마귀들 2의 대사는 의도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치열한 경쟁이 드러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은 장면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려는 의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사와 지문을 의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은 종합적 평가를 내리는 부분에서 장면의 서술자의 말이 추상적이므로 구체적 교훈을 언급해 주는 보완 전략은 타당하다. 그러나 ㉤은 '장면'이 이미 의도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는 대사 추가'는 글의 통일성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의도 Ⅳ'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13.〔발화 상황 이해〕
〔출제의도〕 간접 발화 행위를 구체적 발화 상황에 적용하기
〔해설〕 〈보기〉의 내용대로 '간접 발화 행위'는 종결어미와 기능을 일치시키지 않는 발화 방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은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 있으며, ㉡, ㉤은 특정 행동을 직접 요구하고 있으며, ㉢은 화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모두 직접 발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은 '늦었으니 전화하지 말라.'는 명령적 기능을 의문형 종결어미로 표현한 간접 발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14.〔문맥에서의 어휘 의미 이해〕
〔출제의도〕 문맥에 적합한 관용어 찾기
〔해설〕 '초점을 때리지 않고'라는 표현의 의미는 핵심적인 것을 피한다는 의미이므로 '바로 말하지 않고 둘러서 말하다'의 뜻인 '변죽을 울려서'가 (가)에 적절하다. (나)에는 '오리발만 내밀던'의 구절을 생각할 때,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 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의 뜻인 '시치미를 떼다'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현 대 시〕

〔15-19〕 (가) 김소월 「무심(無心)」
(나) 김남조 「생명(生命)」
(다) 이성복 「그 여름의 끝」

15.〔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출제의도〕 작품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해설〕 ①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인격을 부여한 것은 (가)의 '꽃' 정도가 보이지만, 이것이 대화체 전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②(다)는 토속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작품이다. ③화자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으며 특히 (나)에서는 겨울을 극복하는 생명을 강조하고 있고, (다)의 경우에는 화자의 절망 극복을 노래하고 있다. ⑤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의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가)는 떠난 님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이 주가 되는 시이고, (나)는 고난을 이겨내는 '생명'에 대한 시이다. 또한 (다)는 젊은 날의 방황을 이겨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이다. ④에서 (가)는 봄이 (나)는 겨울이, (다)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각각 주제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16.〔고쳐 쓰기의 효과 파악〕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효과 파악하기
〔해설〕 ①'-소'는 에스런 어투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②'가던'과 '간', '돌아'와 '휘돌아' 등과 같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반복 사용하였다. ③'휘돌아 흐른다'와 같이 물의 속성을 언급하여 물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⑤에서 '물빛'은 변하지 않는 화자의 사랑을 상징하는 중요한 시어이다. 따라서 이 시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앞 여울의 물빛은 옛날처럼 푸릅니다'에서 '물빛'을 시행 첫머리에 배치하여 '물빛'이라는 시어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④의 경우 시구를 도치시킨 부

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17. 〔작품에 대한 종합적 감상〕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해설〕 〈보기〉 그림은 「겨울 월출산 소나무」로서 소나무 한 그루가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소나무는 전통적으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이며 한 그루뿐인 소나무에서는 외로운 감정이 느껴지기도 한다. ①에서 (나)의 '친구'는 고난과 역경을 겪고 상처 입은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②에서 그림 속 소나무는 추위를 이겨내며 살아 있는 존재이다. 여기서 '추위'는 (나)의 '불'과 통하는 시어로서 시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④의 경우 그림의 소나무는 눈을 맞으면서도 살아 있는 존재이며, (나)의 '충전 부싯돌'은 생명이 잠재되어 있는 제재로서 생명이 잠재된 모습을 '충전(充電)'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에서 '겨울 보리'는 '벌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것으로 겨울에도 초록빛을 유지하는 식물이다. 따라서 그림 속의 '소나무'와 통하는 면이 있다. ③의 경우 그림의 배경은 하얗게 눈덮인 산과 벌판으로서 황량한 느낌이 들지만, (나)의 '눈송이'는 '생명'을 비유하고 있는 시어로서 '황량함'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18.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의 전반적인 주제에 비추어 각 시어가 어떤 함축적 의미를 지니는지 추리해 보아야 한다. 〈보기〉로 제시된 이성부의 「벼」는 민중(民衆)을 '벼'에 비유한 작품으로서 특히 '햇살'과 같은 시련 속에서 '벼'가 자라고 성숙하는 모습을 통해, 고난을 겪으며 성숙해지는 민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햇살'은 '고난'을 의미하면서 결과적으로 '성숙'을 가져오는 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성복의 「그 여름의 끝」은 '폭풍'으로 표현된 고통을 겪으면서 절망을 극복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폭풍'은 '나'가 '절망'을 극복하고 성숙하는데 있어 고난을 의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절망극복', 즉 성숙을 가져오는 기능을 맡고 있다. 그러므로 이성부의 「벼」에 등장하는 '햇살'과 이성복의 「그 여름의 끝」에 등장하는 '폭풍'은 그 시적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19. 〔표현의 특징 파악〕
〔출제의도〕 시 작품의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해설〕 ①에서 시적 화자는 자기 자신을 자연물인 '백일홍'에 대응시켜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 ②의 경우 (다)는 '-습니다'의 종결어미를 일관되게 사용하여 형식적 통일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에서 (다)는 화자를 1인칭으로 설정한 후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⑤의 경우 강렬한 붉은 색의 시각적 이미지를 지닌 '백일홍'은 '꽃'이면서 동시에 화자의 내면과 연관된다. ④의 경우 과거 시제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과거 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인 문〕

〔20-24〕 출전 : G.J.휘트로 지음, 『시간의 문화사』
20.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에서 드러나는 글 쓰기 전략 파악하기
〔해설〕 ①은 구석기 시대의 동굴 그림과 폴 라댕의 저서 『철학자로서의 원시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②는 세 번째 단락에서 '행동하는 인간'과 '생각하는 인간'으로 대상을 소개하고, 두 유형의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그 속성을 구분하고 있다. ④는 첫 번째 단락에서 인간은 오래 전부터 이미 기억과 목적의식을 지닌 존재였음을 드러내어 전체 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는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을 통해 '생각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시간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마침내 자기 인식에 이르게 되었음을 연관지어 설명함으로써 '인간의 자기 인식의 과정'이라는 화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은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적 인식의 모순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21. 〔사실적 정보 확인〕
〔출제의도〕 글 속의 정보를 도식화하여 파악하기
〔해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예시를 통해 원시인은 명확한 시간적 구분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기억과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생각하는 인간'이 대상에 영원불변의 형태를 부여하여 '대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상이 자리잡게 되고 이로 인해 시간 관념이 형성됨으로써 인간이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22. 〔어휘의 문맥적 의미〕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은 문맥적 의미는 인간이 대상에 대해 지닐 수 있는 문제의식이나 의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23. 〔세부 정보의 의미 파악〕
〔출제의도〕 문맥의 흐름에 따라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해설〕 ㉡은 전후 문맥으로 보아 대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앞 단락의 '영원 불변의 형태를 정적인 어떤 것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본다면, 현재의 의미 있는 경험을 기록하려 한다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다. ①, ③, ④, ⑤는 문맥을 고려할 때 동떨어진 해석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24. 〔주어진 정보 추론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이해한 다음 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추론하기
〔해설〕 본문에 의하면 ⓐ의 특징은 실용적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계적이며 외부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세계의 설명에는 관심이 없는 인물이다. 이에 비해 ⓑ는 세계를 분석하고 설명하고 싶어하며, 세계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과적, 분석적 해석 능력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과거 두 마리의 사슴이 새끼를 낳아 세 마리가 된 현재 상황에 대해 ⓐ는 단순한 산술적 결과에만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고민하고 설명하려 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인과적 사고 능력과 의미부여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세 마리가 된 현재가 과거로 회귀할 수 있음도 ⓑ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②, ③, ④, ⑤는 타당한 추론이지만, ⓐ가 변화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고전 소설〕

[25-28] 작자미상, 『배비장전』

25.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출제의도] 작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감상을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해설] 주어진 줄거리와 본문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배비장은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하인인 방자에게까지 여자에 빠지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결국 애랑에 반해 방자에게 맘껏 농락당하고 마침내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만다. 이로 볼 때 배비장은 허풍을 치다 망신을 당한 꼴이므로 허세를 부리는 가식적인 인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중적인 위선자의 면모도 읽어낼 수 있다. 이런 배비장을 작가는 비꼬고 있다. ①은 선과 악의 치열한 대결 양상이 없으며, ②, ③은 중심 내용을 다소 벗어난 감상이고, ④는 배비장의 성격이 교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26. [작품 속에서의 인물의 역할]
[출제의도] 판소리계 소설에서 등장 인물이 하는 역할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의 사또는 배비장을 처음부터 골려줄 의도에서 일을 꾸민 것으로 파악되므로 사건의 해결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자는 애랑의 남편으로 가장, 배비장을 궤 속으로 숨게 하여 골탕을 먹임으로써 희극적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배비장 자신은 희화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으며, 사령은 궤 속에 든 배비장을 헤엄치며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함으로써 동헌에 있는 여러 사람들 앞에 배비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희화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③의 애랑은 방자와 같은 입장에서 배비장을 골려주고 있으므로 방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지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27. [장르 전환을 위한 구상 방안]
[출제의도] 마당극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상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해설] 본문은 서술자의 서술보다는 주로 인물간의 대사 위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대사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해학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한 구상 방안이다(②). 또한 중간 중간에 서술자의 개입도 일어나고 있으므로 서술자 역할을 하는 인물을 따로 설정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③). 특히 배비장이 궤에서 나와 허우적거리며 헤엄을 치는 대목은 이 작품의 해학성이 두드러지는 결정적 대목이므로 적절한 장단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는 것도 효과적이다(①). 또한 전체적으로 상황을 능청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 해석이다(⑤). 그러나 ④와 같이 무대 배경을 바다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 공간적 배경이 애랑의 방과 동헌이므로 바다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작품의 상황을 잘못 이해한 진술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28. [인물의 말하기 방식]
[출제의도] 등장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해설] ㉠은 배비장이 동헌 마당 앞에서 발가벗고 헤엄을 치다 깨어나는 대목인데, 사또는 이미 이 상황의 내막을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면서 의뭉을 떨고 있다. 즉, 상황이나 내막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의도가 내포된 말하기 방식을 찾으면 된다. ②는 다그침, ③은 나무람, ④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거짓 진술, ⑤는 단순한 반문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①은 놀부가 흥부인 줄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체하고 있으므로 말하는 방식이 ㉠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과 학〕

[29-32] 출전 : 과학동아, 2004. 2, 『물리적으로 풀어낸 물수제비』

29. [사실적 정보의 확인]
[출제의도] 주어진 지문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기
[해설] 본문에 의하면 물수제비 발생에는 던진 돌의 세기와 적절한 각도 그리고 회전이 중요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물론 물의 표면장력과 공기의 저항도 변수가 될 수 있다. ①은 돌의 무게가 물수제비 횟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②는 돌의 표면과 물의 표면장력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③은 회전이 공기 저항과 관련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화한다는 진술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회전의 방향에 따라 공기 저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④는 첫째 문단에서 회전하는 물체가 중력을 이기고 수면을 치고 나가는 역학 문제를 푸는 것이 물수제비를 바라보는 과학자들의 생각이라고 했으므로 중력과 물수제비 횟수가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넷째 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돌이 수면에 부딪친 후, 운동에너지가 계속 유지되면 돌에 가한 힘이 계속 살아 있으므로 물수제비가 잘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30. [적절한 사례 찾기]
[출제의도] 주어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와 본질적 상황이 유사한 사례 찾기
[해설] ㉠은 물수제비라는 생활 주변의 자연 현상에서 그 원리를 찾아내 발명으로 연결시킨 경우를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②, ③, ④, ⑤는 그 속성과 경우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①에서 자연 현상이 아닌 프리즘이라는 발명품을 통해 빛을 분리하고 그것

을 이용하여 무지개의 빛깔을 규명해냈다는 것은 발명품을 활용한 정도로 볼 수 있으므로 ㉠과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31. 〔정보를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을 추론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통해 원리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비행기에서 쏜 포탄은 물수제비의 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으므로 ⓐ에서 ⓑ가 발사되는 세기와 ⓑ와 ⓒ가 만나는 각도, 그리고 ⓑ의 회전력과 그 회전의 방향이 물수제비 횟수와 깊은 상관이 있다. 그리고 특히 회전과 관련해서 본문의 '베르누이 정리'와 '마그누스 효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그림에서 ⓑ의 회전 방향대로라면 포탄의 위 부분은 공기의 흐름이 포탄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흘러 포탄 주변의 회전하는 공기의 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공기의 속도가 빨라져 압력이 낮아진다. 아래 부분은 그 반대가 되므로 공기의 흐름이 위쪽보다 느려질 수밖에 없다. 만일 ⓑ의 회전이 반대라면 당연히 포탄의 아랫부분은 공기의 속도가 빠르고 압력이 낮지만, 위쪽은 공기의 속도가 느리고 압력이 커져 ⓑ가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32. [주어진 조건과 부합하는 정보 찾기]
[출제의도]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다른 상황에 응용하기
[해설] <보기>에서 우주과학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귀환하는 우주선이 대기층과 충돌 없이 진입할 수 있는가 ' 하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본문에 제시된 여러 실험 중에서 역으로 어떻게 했을 때 물수제비가 일어나지 않고 곧바로 물에 빠져 버릴 것인가에 우주 과학자들은 주목할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그래야 대기층과 충돌 없이 곧바로 우주선이 대기권 내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현대 소설〕

〔33-37〕 김원일, 『연』

3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나)의 '대나무'와 '풀'은 아버지의 의지나 의식과는 관계가 없다. (다)의 '신작로'는 엄마를 마중하는 길일뿐이며, '뇌성'은 '나'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죽음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지만 '동경'과는 무관하다. (라)의 '자전거'는 나의 소망과는 무관하며, '함지박'은 미래에 대한 어머니의 소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힘겨운 삶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마)의 '속달 전보'는 어머니의 희망이 좌절됨을 뜻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구속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나'가 아버지로부터 벗어남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가)의 '장터'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공간이며, '별채'는 '집발이나 좀 붙어 눌러 있을까 싶었던지'를 통해 알 수 있듯,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에 머물기를 바라고 별채로의 이사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별채는 아버지가 집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소망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34. 〔인물의 성격과 태도 비판하기〕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이해
〔해설〕 아버지의 현실 인식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본문에서의 아버지는 이상을 추구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무관심한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①에서처럼 아버지가 이상과 현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②의 '이상 실현을 위한 현실과의 타협'은 아버지가 이상을 추구하는 인물이어야 하나 제시된 내용에서는 그렇게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거나, 이상 추구에서의 만족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단서를 찾을 수 없으므로 ④, ⑤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③은 본문에서 아버지가 빈번한 가출로 떠돌이 삶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실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35. 〔핵심 제재의 이해〕
〔출제의도〕 핵심 제재의 기능과 의미 추론하기
〔해설〕 ①은 떠돌이 삶을 반복하는 아버지의 삶의 행태를 통해 알 수 있다. ②는 〈보기〉 첫째 제시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④는 별채로 이사온 지 보름도 못 넘겨 아버지가 집을 나간 점이라든지, '1년을 따져 평균 아홉 달은 집을 떠나 어디론가 떠돌아 다녔다'라는 표현과 〈보기〉의 첫째 제시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⑤는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내게 더러 방패연을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이라는 구절과 〈보기〉의 첫째, 둘째 제시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연이 ③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유연한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기능을 지녔다는 것은, 아버지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 따라서 답은 ③이다.

36. 〔인물의 행위 의도와 심리〕
〔출제의도〕 인물의 행위 의도와 심리 파악하기
〔해설〕 ①의 애걸복걸(哀乞伏乞)은 '소원이나 요구 따위를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빎'을 나타내는 말이다. ②의 애지중지(愛之重之)는 '매우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③의 수구초심(首邱初心)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의 전전긍긍(戰戰兢兢)은 '몹시 두려워 벌벌 떨며 조심한다'는 뜻이다. ①~④는 본문에 나타난 어머니의 행위나 발언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경우이다. ⑤의 항구여일(恒久如一)은 '오래도록 변함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어머니는 (가)에서 아버지가 요구하는 별채로의 이사를 순순히 수용하고 있으며, (라)에서 '입가에 미소'와 '행색은 어떻더노?', '어데를 다쳤다는 말이가?'와 (마)의 '나는 인자 누굴 믿고 우예 살꼬' 하는 발언을 통해 어머니가 속으로는 아버지를 남편으로 변함 없이 믿고 의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37.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적 태도〕
〔출제의도〕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적 태도 파악하기
〔해설〕 이 작품은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인 '아버지'를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서술 내용에 교묘하게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의 '붙어 있는', ㉡의 '또 슬그머니', ㉢의 '짓거리', ㉣의 '쓸데없이'가 그 단적인 예로 아버지에 대한 서술자의 못마땅함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나와 어머니의 태도를 말하고 있을 뿐, 아버지에 대한 서술자의 못마땅함을 나타내는 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기 술〕

〔38-41〕 출전 :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생체모방공학에 대하여』

38. 〔서술 방식과 효과 파악〕
〔출제의도〕 글에 나타난 서술 방식과 효과 파악하기
〔해설〕 전체적으로 이 글은 생체모방공학이라는 이론을 홍합이나 거미불가사리, 연잎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또한 생체모방공학의 특성과 그 응용 범위 및 의의에 대해 밝히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39. 〔다른 상황에의 적용〕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해설〕 본문에 의하면 생체모방공학은 자연 생명체의 행동이나 구조, 물질 등을 연구 모방하여 인간 생활에 적용하려는 기술을 말한다. ①에서 종균 배양법으로 야생 버섯 품종을 개량하는 것은 품종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고, ②에서 논농사에 오리를 이용하여 잡초 및 해충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무농약 유기농법을 말하는 것이다. ③은 유전자 변형을 통해 옥수수 자체의 성질을 변형시키는 방법이며, 또한 ⑤는 천적인 무당벌레가 진드기를 잡아먹어 농약 사용 없이 무공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①, ②, ③, ⑤는 생체모방공학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④는 벌집의 육각형 구조를 모방하여 튼튼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을 만든 경우이므로 생체모방공학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40. 〔핵심 내용 파악〕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해설〕 홍합의 특성은 '떨어지지 않는 첨단 접착제'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에서 흡착성이 좋음을 알 수 있으며, 거미불가사리는 미세한 빛을 감지하는 '방해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마이크로 렌즈에 응용할 수 있다. 연잎은 올록볼록하게 돋은 돌기의 '비접착성' 때문에 먼지가 붙어 있을 수 없는 뛰어난 정화 능력이 있는데, 이를 응용한 것이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특수 유리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41. 〔어휘의 문맥적 의미〕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단어 파악하기
〔해설〕 본문에서 '떨어지지'의 의미는 교원질 섬유 조직이 바위에 붙어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①은 '뒤를 대지 못하여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되다'는 의미이고, ②는 '병이나 습관 따위가 없어지다'라는 뜻이다. ③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④는 '달렸거나 붙었던 것이 갈라지거나 떼어지다'의 뜻이다. ⑤는 '나눗셈의 나머지가 없이 나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예 술〕

〔42-45〕 출전 : 정병모,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

42.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감상하기〕
〔출제의도〕 제시문의 내용을 다른 작품에 적용하여 감상하기
〔해설〕 〔A〕는 '민화'의 특징인 자유로운 상상력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런 관점에서 ①은 뿔이 없는 동물인 개의 발과 머리에 뿔을 그렸다는 자체가 '기발한 상상력'을 나타낸다. ②의 '주먹코를 확대 변형해서 그렸다'는 점을 생명력을 강조한 작가의 의도로 이해한 것은 문맥상 타당한 감상이다. ③의 '우람한 발을 통한 현실 세계의 변형'도 개의 앞발을 크게 그려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④에서 '개의 꼬리를 하늘로 뻗치게 하여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꼬리의 방향과 뾰족한 모양에서 생동감을 읽어낸 점에서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⑤에서 '반점의 일정한 간격을 통해 동물 그림의 화법에 충실하려는 작가의 창작 태도'를 읽어낸 것은 〔A〕의 관점에서 벗어난 감상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43. 〔상황의 유사성 파악〕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한 내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해설〕 ㉮의 상황은 오랜 시간 동안 대나무를 가슴속에 품어 대나무의 본질을 주체가 확연하게 인식하는 수준으로 대상과의 합일의 경지, 즉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라고 볼 수 있다. ①은 대상에 대해 주체가 느끼는 친화적인 상태를 나타내지만 물아일체의 경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③, ⑤는 상황이 이질적이다. 그러나 ④의 종장에서는 주체인 '나'와 객체인 '백구'의 구분 의식이 없는 물아일체의 경지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44. 〔정보 간 관련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제시 자료와 본문과의 관련성 파악하기
〔해설〕 〈보기〉에서의 '작가의 내면 세계'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작가의 혼과 얼'이 담긴 세계로 볼 수 있다. 본문의 ㉡은 통일 신라 시기 자신감이 표현된 것으로 문맥적으로 볼 때 작가 정신의 구현으로 볼 수 있다. ㉢과 ㉣은 대상의 본질과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작가의 태도를 의미하므로 이는 곧 작가가 추구하는 생명력과 관련이 있다. ㉤은 대나무와 작가가 대상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대상과 합일된 상태이므로 작가의 내면 세계와 상통한다. 그러나 ㉠은 유명 작가의 작품을 모방한 것으로 '작가의 내면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45. 〔심화 학습 계획의 적절성 파악〕

〔출제의도〕 심화 학습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해설〕 ①은 본문에서 보편적인 미술 감상의 기준을 분명하게 '생명력'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심화 학습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 ②는 '생명력은 역사적 쇠퇴기에도 발현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그러한 구체적인 예술품을 찾아보는 것은 심화 학습에 해당한다. ③은 공재 윤두서가 말 그림으로 대상에 대한 애정을 섬세한 필치로 표현했다고 했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이 다른 작품에도 나타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심화 학습으로 적절하다. ④는 '문화의 황금기인 8세기에도 생명력이 약한 조각품이 있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심화 학습으로 적절하다. ⑤는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품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추상적인 진술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적절한 심화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현대 수필〕

〔46-51〕 (가) 법정, 『어느 오두막에서』
(나) 윤선도, 『만흥』
(다) 정극인, 『상춘곡』

46.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해설〕 세 작품 모두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바탕으로 화자의 태도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자연이 지닌 가치를 인간이 배워야 함을, (나)는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다)는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려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①은 (다)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는 (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의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는 (가)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⑤의 '갈등'은 (나)에서는 다소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와 (다)에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47. 〔대상에 대한 인식 태도의 이해〕
〔출제의도〕 대상에 대한 인식 과정 파악하기

〔해설〕 (가)의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꽃'에 대한 인식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가)의 첫째 문단에서부터 셋째 문단에 나타나 있는 대상(꽃 혹은 개화)에 대한 인식 과정은 '현상의 발견과 관찰(㉮)→현상이 지닌 의미 파악(㉯)→현실(=삶)에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는 객관적 현상에 대한 관찰 과정(①)이고, 대상의 발견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는 현상 속에 깃들어 있는 자연의 원리를 깨닫는 과정(③)이다. ㉰는 현상을 통해 깨달은 바를 작가가 주관적으로 현실 세계에 적용해 보는 과정(④, ⑤)이다. 그러나 ②는 ㉮에 해당되는 설명이 아니라, ㉯의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48. 〔다른 상황에의 적용〕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해설〕 (가)의 '오두막'은,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 간소한 삶,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 곧고 가지런한 마음가짐, 욕심을 내지 않는 마음을 나타내는 공간이다. 그러나 ①, ③, ④, ⑤는 모두 실용적 목적이나 소유욕을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는 본문에 제시된 '어느 한 사람'의 삶의 태도와 같이, '머물지도 않은 것처럼 머물다가 훌쩍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문에 제시된 '한 사람'의 삶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49. 〔작품 간의 공통점 이해〕
〔출제의도〕 작품 간 표현상의 공통적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해설〕 ①의 '대구'는 (나)의 〔C〕와 (다)의 '화풍이~옷새 진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음보의 반복'은 4음보의 규칙적인 리듬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의 '시각적 표현'은 (나)의 〔A〕와 (다)의 전반에 고루 나타나 있다. ④의 '영탄적 표현'은 (나)와 (다)의 종결 어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의 '지칭 대상이 동일한 다양한 시어'는 자연을 지칭하는 시어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어는 (나)의 산수, 임천, 강산 등과 (다)의 녹수, 청류, 연하일휘 등이다. 그러나 ②의 '구체적인 청자 설정'은 (나)에서는 구체적 청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에 등장하는 '소동'은 술을 사온 과정을 진술하는 가운데 등장한 인물일 뿐 대화 상황에서 설정한 구체적 청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50. 〔작품에 대한 종합적 감상〕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시어의 기능과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C〕의 '만승'은 부러움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된 비교 대상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51. 〔감상 내용의 적절성 파악〕
〔출제의도〕 작품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①의 '세속적 삶에 대한 미련', ②의 '자연을 통해 삶의 교훈 이끌어 내기', ④의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의 차이', ⑤의 '현실의 어려움을 자연 현상에 빗댄 표현' 등은 (다)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③의 '대상에 대한 화자의 흥취 드러내기'는 (다)의 화자가 자연의 빼어난 경관을 보며 술을 마시면서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사 회〕

〔52-56〕 출전 : 강준만, 『대중 문화의 겉과 속』

52. 〔글쓴이의 목적 파악〕
〔출제의도〕 글쓴이의 의도 파악하기

〔해설〕 글쓴이는 '현대인들이 대중 문화의 영향 때문에 사회적 가면을 쓴 채, 타자 지향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을 단순하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글쓴이는 현대인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겉모습보다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소중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53. 〔비판의 적절성 판단〕
〔출제의도〕 대상에 대한 비판의 적절성 파악하기

〔해설〕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중요시하던 '과거를 향유했던 사람'이, 내면보다는 겉모습의 느낌을 중시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 이럴 경우 보기 좋게 꾸며진 겉보다는 실속이 있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①의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속담은 겉보기보다는 속이 더 낫다는 말로, 이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함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과거를 향유했던 사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②, ③, ⑤는 겉모습이 좋아야 내면도 좋을 수 있다는 것으로 겉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54. 〔사례의 적절성 판단〕
〔출제의도〕 사례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글쓴이는 현대인들이 대중 문화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조바심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특히 광고에 의해 많이 생겨난다고 했다. ①, ③, ④, ⑤는 대중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그 정보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열등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여겨 대중 매체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례들이다. 그러나 ②의 '극장에서 공포영화를 보고 화장실에 가기를 무서워한다'는 내용은 단순한 공포심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55. 〔정보 간 관계 파악〕
〔출제의도〕 정보의 성격 파악하기

〔해설〕 ⓐ, ⓑ, ⓒ, ⓓ는 현대인들이 지닌 특성인 타자 지향적 삶의 태도, 겉모습을 중시하는 태도를 나타낸 말이다. 그러나 ⓔ는 '자신의 참모습'을 뜻하는 말이므로 ⓐ, ⓑ, ⓒ, ⓓ의 뜻과는 이질적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56. 〔문맥적 의미의 파악〕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본문에서 '짝'의 의미는 '-기 짝이 없다' 식의 진술로 "반갑기 짝이 없다. / 기쁘기 짝이 없다." 등과 같이 '비할 데 없이 대단함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언 어〕

57. 〔내용의 사실적 이해〕
〔출제의도〕 개괄적 정보를 확인하기

〔해설〕 언어의 지표성은 세 번째 단락에(①), 인지언어학의 중심 개념은 첫 번째 단락에(②), 언어의 도상성을 이루는 요건은 두 번째 단락에(④), 언어의 도상성, 언어의 지표성, 언어의 상징성의 상호 기능은 마지막 단락에 뒤섞여 기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⑤). 그러나, 네 번째 단락은 '상징성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지 '언어의 상징성을 분류'하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58. 〔정보의 개념 파악〕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따른 정보의 개념 파악하기

〔해설〕 〈보기〉의 내용에 의하면 '개념'은 구체적인 사물에 해당하는 지시 대상의 속성이나 공통적 요소를 추상한 내용 즉, 의미를 뜻하고, 그 의미를 표현한 수단이 '기호'라고 했으므로, 제시문의 '식물의 일종'은 문맥적으로 볼 때, 나무의 뜻을 의미하는 '개념'에 해당한다. 그리고 '木'은 지시 대상인 '실제 나무'를 표현한 '기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59. 〔적합한 사례 찾기〕
〔출제의도〕 세부 정보에 맞는 사례 찾기

〔해설〕 ㉠은 도상성의 원리 중에서 '두 개념이 합성될 때 자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렇지 못한 개념에 비해 어순이 선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한국인은 '한일 월드컵', 일본인은 '일한 월드컵'으로 부르는 경우이다(⑤). ①은 일종의 지표성에 해당하며, ②는 두드러지고 힘이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선행하여 결합하는 경우이고, ③은 상징성에 해당하며, ④는 긍정적 요소가 선행하여 결합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60. 〔개념 구분 기준의 적절성〕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구분 기준 판단하기

〔해설〕 이 문제는 도상성과 상징성을 변별하는 적절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항이다. 도상성은 언어의 형식과 의미 사이에는 사실적 유사 관계가 존재하지만, 상징성에는 언어의 형식과 의미 사이에 자의적 관계가 있을 뿐 사실적 유사 관계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